

세월호 때 처럼... VTS 무사안일에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해상교통관제센터)

■완도 해상 어선 전복 사고 위치도



완도 청산도 해상 어선 전복사고 '전형적 人災'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3시간 전부터 끊겼는데 해경은 관제대상 아니라며 아무런 조치도 안해 근롱호 긴급구조신고 발신장치는 2년전부터 고장

완도 청산도 해상에서 7명의 인명피해를 낸 근롱호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해경의 늦장 대응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였다.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Vessel Traffic Service)는 무사안일한 업무 태도로 구조 골든타임(사고 후 1시간 이내)을 놓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어선은 이날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풍랑주의보 속에 발견 3시간여 전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Auto Identification System)의 신호가 끊겼는데도, 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측은 관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진도 VTS 관제자들이 사고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해상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근롱호는 전날 오후 1시16분 AIS 신호가 최종적으로 두절됐으며 구조 신고도 없었다. 통발어선인 근롱호 선원들은 잠어 조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롱호는 AIS 신호 두절 3시간 뒤인 오후 4시 30분께 인근을 지나던 4000t급 유조선인 유성호의 1등 항해사가 목격, VTS에 신고했다. 유성호 1등 항해사의 신고 전까지 VTS와 해경은 근롱호의 사고 사실을

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해경은 "관련법상 선체 길이 40m를 넘어야 VTS가 관제하는데 근롱호는 길이 14.5m의 소형어선이라 관제 대상이 아니었다"며 "배가 수없이 많아 작은 배까지 모두 살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근롱호에 설치된 또 다른 '안전 장치'인 어선 위치·긴급구조신고 발신장치(V-PASS)가 2년 전부터 고장난 채 운행했다는 점이다. 특히 해경 등은 관제기관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전 불감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V-PASS'는 어선이 침몰하는 등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VTS 등에 구조신호를 발신하는 장치로, 이 시스템을 갖춘 선박은 자동으로 출항·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조업 전 해경 등에 어선출입(항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근롱호는 V-PASS 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지난 26일 선원 한 명이 직접 완도해경파출소에 출항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법에서 모든 선박은 위치발신장치인 V-PASS, AIS,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Very High Frequency-Digital Selective Calling) 중 한 가지 이상을 설치, 운용하도록 규정하



완도군 청산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근롱호 선원들을 구조하기 위해 해경이 1일 새벽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고 있다. 다만 고장이 나도 입·출항신고와 고장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항할 수 있고, 고장시 수리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는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V-PASS가 고장난 근롱호의 경우도 AIS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재를 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결국 이번 침몰한 근롱호도 이 두 시스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고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근롱호의 사고 원인으로는 강한 바

람과 갑자기 높아진 파고, 선박의 구조적 특성 등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 사고 당일 낮 12시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사고 해역은 오전 10시부터 1m 이하였던 파고가 오전 11시부터 1.3m로 높아졌고 3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두배 이상 높은 2.9m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 풍속도 20m/s였다.

근롱호 선장 진보(66)씨도 이날 낮 12시 55분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기상이 악화돼 청산도로 피항한다"고 마지막 연락을 남겼다.

통발어선 특성상 갑板上 어구를 높이 쌓아놓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갑자기 높

아진 파고와 강한 바람에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전복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해양안전심판원 '해상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 악화 때문에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905건이다. 이중 높은 파도(풍랑주의보 이상)에 의한 사고는 376건(41.5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완도 해역에서 일어난 선박 전복사고 2014년 2건, 2015년 4건, 2016년 13건이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AIS(선박자동식별장치·Auto Identification System)

선박 위치를 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내 선박간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구조 신호 발신 기능이 없다.

● V-Pass(선박패스) : 고속도로 하이패스 처럼 어선의 입·출항 신고를 자동 처리하며 위치를 VTS에 발신하는 장치로, 선박이 일정 각도 이상 기울면 자동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는 기능이 탑재돼 있다.

● VHF-DSC(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장치·Very High Frequency-Digital Selective Calling) : 수협중앙회가 구축한 선박 위치 자동 발신 시스템으로, 버튼을 누르면 구조 신호를 발신하는 기능이 있다.

농약을 막걸리로 착각해 음용

80대 2명 치료...생명 지장 없어

지난달 28일 오후 4시10분께 영광군 대마면 한 마을회관에서 김모(85) 할머니는 마을회관 신발장 옆에 놓인 1ℓ 크기 농약(람다그린)을 한 모금 마셨으며, 오모(89)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찍어 내뱉을 맡은 뒤 20~30분 후 갑자기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김 할머니는 영광의 한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은 뒤 광주시의 한 대학병원으로 재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마을이장이 마을회관 대청소를 위해 신발장 옆에 놓아둔 농약을 글을 읽지 못하는 김 할머니와 오 할머니가 용기가 비슷한 막걸리로 착각해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

경찰 수사단계서 영장 신청 요건 면밀 검토

강제수사 남용 막는 '영장 심사관' 시범 시행

전국 8개 경찰서 5일부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신청 요건을 꼼꼼히 살펴 강제수사 남용을 막는 '영장 심사관' 제도가 시범 시행된다. 경찰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보완해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5일부터 서울청 소속 등 8개 경찰서에서 영장심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에서 영장을 신청하기 전 신청 요건과 사유 등이 타당한지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이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면 영장심사관이 요건을

심사한 뒤 수사부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검찰로 관련 서류를 남긴다.

영장심사관은 영장 신청 전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충분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팀으로 반려할 수 있다.

아울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거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을 분석해 수사관 교육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영장심사관은 경찰에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7년 이상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로 구성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내 폭행 치사 후 도주

진도경찰, 남편 검거 조사

진도경찰청은 1일 자신의 아내(34)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남편 A(3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5분께 진도군 군내면 자택에서 아내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내가 쓰러진 뒤 곧바로 도주했으며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 한 모텔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부부싸움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아내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승용차 바다 추락 1명 사망

1일 새벽 3시 35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해양공원에서 승용차 1대가 난간을 들이받고 바다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모(29)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출동한 해경은 바다로 추락한 차를 수색하다 김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유족과 김씨 동료 등을 상대로 음주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광주 3·1절 행사 공연팀 친일 작곡·작사가 노래 불러 '시끌'



○--광주시가 주최한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초청 공연팀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작곡·작사가가 만든 노래를 불렀다가 망신살.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광주시 동구 민주의 종각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타종식에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 한 합창대 그룹이 가곡 '선구자'를 부르자, 일부 시민이 거세게 항의해 '선구자'

노래 공연이 취소됐다는 것. ○--가곡 '선구자'는 친일인사로 알려진 작곡가 조두남, 작사가 윤해영이 만든 노래인데, 이날 항의를 한 시민은 "어떻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 만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며 미숙한 행사 운영에 일침.

○--가곡 '선구자'는 친일인사로 알려진 작곡가 조두남, 작사가 윤해영이 만든 노래인데, 이날 항의를 한 시민은 "어떻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 만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며 미숙한 행사 운영에 일침.

○--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광주시 동구 민주의 종각에서 열리는 3·1절 기념 타종식에 앞서 진행된 행사에서 한 합창대 그룹이 가곡 '선구자'를 부르자, 일부 시민이 거세게 항의해 '선구자' 노래 공연이 취소됐다는 것. ○--가곡 '선구자'는 친일인사로 알려진 작곡가 조두남, 작사가 윤해영이 만든 노래인데, 이날 항의를 한 시민은 "어떻게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면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사람들이 만든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며 미숙한 행사 운영에 일침.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912,50㎡ 건물: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1,349㎡ 건물: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91,03㎡ 건물: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7,662,4㎡ 건물: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급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136,20㎡ 건물: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3,104,6㎡ 건물: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2,769㎡ 건물: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619,62㎡ 건물: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596,70㎡ 건물: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접별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514,40㎡ 건물: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2,756㎡ 건물: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2,319㎡ 건물: 3,998,33㎡ 지상5층 매매가: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340,4㎡ 건물: 510,09㎡ 감평가: 721,968,950원 최저가: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27,403㎡ 건물: 1,454,36㎡ 감평가: 1,706,257,600원 최저가: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2,329㎡ 건물: 844,08㎡ 감평가: 1,024,812,000원 최저가: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3,319㎡ 건물: 2,480,7㎡ 감평가: 3,024,288,500원 최저가: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3,673㎡ 건물: 3,037,52㎡ 감평가: 3,744,229,960원 최저가: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